

보성군 차문화시설, 2025년 운영 실적 뚜렷한 성장

연간 이용객 52만 명 돌파... 전년 대비 수익금 27.31% 증가

보성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관내 차문화시설을 운영한 결과, 총 이용객 523,359명, 수익금 29억 2,500만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이용객과 수익 모두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대비 이용객 45,305명(9.48%) 증가, 수익금 3억 6,100만 원(27.31%) 증가한 수치로, 보성 차문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 확대와 관광 수요 회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 말차 트렌드 확산에 따라 '봄재', 이용객·수익 동반 성장

차문화 관광 거점 시설인 '봄재'는 2025년 이용객 131,266명, 수익금 7억 300만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이용객 11.81%, 수익금 14.15% 증가한 실적으로, 말차 트렌드 확산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말차(抹茶)

음료와 디저트, 차 기반 프로그램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성녹차의 원산지 이미지가 재조명됐고, 이와 연계된 체험·상품 소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또한, 봄재는 차밭과 한국차박물관, 율포솔밭해수욕장, 지역 상권으로 관광객 동선을 확장하는 차문화 관광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높이고 있다.

■ '한국차박물관', 관람 수요 증가

'한국차박물관'은 2025년 이용객 135,384명으로 전년 대비 11.63% 증가했으나, 수익금은 8,700만 원으로 1.65% 감소했다.

차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 확대로 관람·교육 목적의 방문은 꾸준히 늘었으나, 전시 중심의 이용 구조와 유료 체험 콘텐츠 비중이 낮아 수익 증대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다만, 한국차박물관은 보성 차문화의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는 핵심 공공문화시설로서 상징성이 크며, 향후 체험형 전시와 관광 연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질적 성장이 기대된다.

■ '율포해수욕장센터', 안정적 수익 기반으로 성장 견인

'율포해수욕장센터'는 2025년 이용객 256,709명, 수익금 21억 3,500만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이용객 7.24%, 수익금 14.81% 증가했다.

이용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했으나, 수익 증가율이 대폭 상승하며 높은 수익 창출 효율을 나타냈다. 이는 해수욕장 등 유료 프로그램 이용 확대와 체험형·휴양형 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율포해수욕장센터는 보성 차문화 시설 중 가장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시설로, 지역 관광 체류시간 연장과 소비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성/김은기 기자

영광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영광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판매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개인별 구매한도는 지류형 월 20만 원, 카드형 월 50만 원이다.

영광군, 2026년 영광사랑상품권 할인 혜택 확대

상품권 유행형 혜택은 지류형과 카드형으로 구분된다. 지류형 상품권은 연중 10% 할인율이 적용되고 카드형 상품권은 1~2월에는 12%, 3~12월에는 10% 인센티브로 지급되되 카드형 상품권 중정은 1월 9일부터 가능하다.

영광군은 이번 할인 판매를 통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 군민들에게는 소비 부담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광/이현식 기자

진도군, 동절기 취약계층 발굴과 보호에 총력

난방비, 생계비 지원 등 3,854가구에 9억 1,000만 원 지원

진도군은 동절기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동절기 지원 사업을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 왔다.

2개월 동안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 겨울철 취약계층 3,854가구에 난방, 생활,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으며, 올해 3월까지 지원은 계속된다.

세부 지원 내용은 ▲난방비 지원 3억 4,600만 원(1,160가구) ▲은누리 상품권 가구당 10만 원(30가구) ▲김장 김치 지원 990가구 ▲백미 480가구 ▲고독사 고위험군 16가구에 밀반찬과 건강 음료 제공 ▲독거노인 1,855명의 안부를 확인하고 방문 돌봄 서비스를 추진했다.

특히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사 각지대 2,912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는 신속하게 ▲긴급 생계비 3억 3,100만 원(364가구) ▲긴급의료비 2억 900만 원(91가구) ▲긴급연료비 2,100만 원

(138가구)를 지원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작은 생활 하나가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통해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군은 동절기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위기가구를 관리하고 발굴하며, 계절별 맞춤형 복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119 생활안전순찰대와 합동으로 주거 여건이 열악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등에게 선제적인 지원을 했다.

복지기동대는 ▲화재 취약 가구 안전 점검 및 안전 꾸러미 지원 120가구 ▲난방시설 지원 15가구 ▲난방 물품 지원 28가구 ▲소규모 수리 4가구 등을 통해 취약 가정의 생활 불편을 개선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담양군, 청년 농업인과 현장 소통 강화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난 5일 담양군청 소외원실에서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과 농업사관학교 졸업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농업인이 영농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참석한 청년 농업인들은 영농 초기 정착 과정에서 느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며 농업정책 개선 방안, 스마트팜 활성화, 설향 무균묘의 안정적 공급, 1:1 맞춤형 컨설팅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제언과 의견을 냈다.

담양/이종욱 기자



구례군 산동면 원촌초등학교, 행사 수익금 기부

구례군은 지난해 12월 31일 산동면 원촌초등학교 학생들이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산동 나누고 가계'를 방문해 성금 2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원촌초등학교 학생회가 실시한 '아나바다장터' 행사 수익금 전액과 전교생이 모은 용돈으로 마련됐으며, 학생들의 작지만 소중한 나눔이 2년째 이어져 지역사회에 더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명만)가 특화사업으로 운영하는 '산동 나누고 가계'는 올해에도 1~2월 정비 기간을 가진 후, 오는 3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다시 문을 열고 관내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 가구에 생활용품을 무상 지원할 계획이 다.

구례/한정호 기자



장흥군,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장흥군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일부터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총 12억 원을 투입해 77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1월에는 심사를 통해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흥분관 ▲(사)시각장애인연합회 장흥지회가 민간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들 기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을 완료했다.

장흥군 제공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